無自欺의 現代的 意義

李 恒 寧 *

目 次

Ⅰ. 大巡目的論
Ⅱ. 精神이란 무엇인가?
Ⅲ. 精神開闢이란 무엇인가?
Ⅳ. 自己란 무엇인가?
Ⅴ. 欺란 무엇인가?
Ⅵ. 無自欺의 狀態
Ⅶ. 無自欺의 現代的 意義
1. 自己反省의 必要性
2. 人間尊嚴性의 提高

Ⅰ. 대순목적론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이 있다. 목적에는 좋은 목적과 좋지 않은 목적이 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도 가리지 않는 착한 일을 하겠다는 이타적(利他的) 생각은 좋은 목적이요 나 하나만 이로우면 그만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利己的)인 생각은 좋지 않은 목적이다.

목적에 착하고 악한 것이 있듯이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에도 좋은 수단과 좋지 않은 수단이 있다.

가령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목적은 착한 것이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 부모님이 즐기시는 음식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 수단은 착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하여 도둑질을 하는 방법을 쓴다고 하면 그 방법은 착하지 않다. 또 가령 남의 돈을 빼앗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목

*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법학박사

적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칼로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그 방법은 악한 것이다. 그러나 남의 돈을 빼앗는데 있어서도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돈을 내놓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 그 방법은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일의 좋고 나쁨은 먼저 그 목적에서 정해진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쓰는 방법의 좋고 나쁨도 그 일 전체를 평가하는데 문제가 된다. 목적이 좋고 그 방법이 좋으면 두말 할 것도 없이 그 일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그 방법이 좋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 치더라도 그 일이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또 목적이 좋지 않은데다가 방법도 좋지 않으면 그 일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좋지 않은 일이지만 목적은 좋지 않아도 그 방법이 좋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일에 있어서 그 목적을 중요시하는 생각은 동기론(動機論)이며 그 방법을 중요시하는 생각은 결과론(結果論)이다. 동기론을 주장하는 사람가운데에는 그 동기가 되는 목적만 좋으면 그 방법이나 결과가 어떠하던지 그 일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요 또 결과론을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그 동기가 좋지 않거나 좋지 않은 방법을 썼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았다고 하면 그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좋은 목적에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좋지 않은 목적에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선악이 분명하지만 좋은 동기에 나쁜 방법을 쓰거나 좋지 않은 동기에 좋은 방법을 쓰는 것은 간단하게 그 선악을 가릴 수가 없다.

동기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위선(僞善)이 되어 결국 좋지 않은 일로 평가하지만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 결과만 좋으면 설사 그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이루었다고 하면 그것을 덮어놓고 좋지 않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위선여부를 가리기보다는 공리주의(功利主義)나 실용주의(實用主義)에 치중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하나의 종교집단으로서 좋은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목적은 첫째로 정신이 제대로 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정신개벽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사는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요 둘째로는 인간이 타락하여 서로 미워하고 싸워서 이 지상세계가 마치 악마들이 들끓는 지옥처럼 되어버렸는데 그 인간의 본연의 자체를 찾도록 인간을 개조하여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악마가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가진 신선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이요 셋째는 인간들이 사는 세계가 인간이 타락하여 지옥처럼 되어있는데 그 악마 같은 인간이 인간개조로 신선이 되고 이 세상에는 오직 신선들만 사는 천국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인간이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두 신선이 되고 이 세상을 신선들이 사는 천국으로 만들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참모습을 다시 찾아 이상인으로서의 신선이 되게 하고 죄악에 젖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상사회 건설이 그 목적이다.

자고로 현인과 도덕가나 종교가가 어떠한 인간이 참 인간이냐 하는 이상인상(理想人像)을 구상하였고 어떠한 사회가 참으로 행복한 사회인가 하는 이상사회상(理想社會像)을 구상해왔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좋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순진리회는 이상인과 이상사회를 지상신선과 지상천국으로 집약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이상인상과 이상사회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순진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4강령과 3요체의 신조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정성 공경 신의를 굳게 지키며 안심하고 안신의 경지를 얻어 경천하고 수도하는 것이다. 신조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신선이 되고 천국을 만드는 것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조는 수도하여서 도통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 신선이요 어떠한 사회가 천국인가 하는 것은 음양이 합덕되고 신인이 조화하고 해원상생하고 도통진경하는 사람이 신선이요 그러한 신선이 사는 사회가 천국이다. 대순진리회의 4대종지가 바로 그것이다. 도통진경은 도통하여 진경을 이룬다는 것인데 진경은 목적인 천국이요 도통은 방법인 신조이다. 그 천국은 어떠한 모습인가 음양합덕 되고 신인조화 되고 해원상생된 신선들이 사는 세계요 그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신조이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

의 종지는 그 목적과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으로 교리의 핵심을 이룬다. 대순진리회 요람의 교리 개요에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종지로 하고 성경신의 삼법언으로 수도의 요체를 삼고 안심 안신의 이율령으로 수행의 훈전을 삼아 윤리 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 구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을 이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순진리회의 목적과 방법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동안 종지와 신조에 대해서 살펴왔는데 이제 다시 그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Ⅱ. 정신이란 무엇인가.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첫째로 정신개벽으로 무자기의 경지에 이르고 둘째로 인간개조로 지상천국건설을 함에 있다.

무자기와 정신개벽, 지상신선실현과 인간개조 지상천국실현과 세계개벽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는 무자기한 상태가 정신의 완전한 상태인데 그 정신이 아직도 무자기의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를 속이는 단계에 있으니 그 정신을 개벽하여 무자기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정신개벽이 되어야 무자기의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자기와 정신개벽은 결국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지상신선실현과 인간개조도 또한 같다. 인간은 원래 신선처럼 깨끗한 것인데 그것은 더렵혀져서 속화(俗化)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개조해서 본래의 인간으로 환원되면 그가 바로 지상신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개조와 지상신선실현은 결국 같은 뜻이다.

또 지상천국건설과 세계개벽도 같다.

본래 아름다운 세계가 더렵혀져서 지옥처럼 살기 어렵게 되었는데 그 세계를 개벽하여 본래의 세계를 회복시키면 그 세계가 바로 지상천국이 된다. 그러므로 지상천국과 세계개벽은 결국 같은 뜻이다.

대순진리회 목적의 첫째는 정신개벽을 이루어 무자기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신개벽이 이루어져야 인간개조가 되고 인간개조가 되어야 세계개벽이 되므로 정신개벽이 그 근본이 된다. 정신개벽으로 무자기가 되고 나서야 지상신선이 될 수 있고 지상신선이 되고 나서야 지상천국이 이루어짐으로 무자기가 지상신선과 지상천국의 근본이 된다. 대순진리회는 무자기를 목적의 첫 번째로 삼고 있는데 대순진리회 훈회(訓誨)에서도 다섯가지 가운데에서 「마음을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을 첫째로 삼았는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 바로 무자기이다. 대순진리회 수칙(守則)의 세 번째로 「무자기는 도인의 옥조니 양심을 속임과 혹세무민하는 언행과 비리괴려를 엄금함」으로 나와있다.

무자기에 이르려면 정신개벽이 되어야 하는데 위선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신이라는 말은 대개 세 가지 뜻으로 쓰여진다. 일반적으로는 물질이나 육체에 대립하는 의미로서 우리말의 「마음」이라는 뜻이요 영어로는 마인드(mind) 독일어로는 가이스트(Geist)에 해당한다. 둘째로는 단순한 마음의 뜻을 넘어서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초개인적 존재로 단순한 심리현상을 넘어서 영적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말로는 영혼(靈魂)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영어로는 소울(soul) 독일어로는 제에레(Seele)에 해당된다. 셋째로는 우리말의 신명(神明) 신령(神靈) 또는 신(神)이란 뜻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서 전 우주를 지배하는 생명이라는 뜻이다. 마음은 모든 동물에 개체적(個體的)으로 존재하는 생명이지만 그러한 마음의 위에 존재하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영혼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마음의 고차원적인 단계로 동물에게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인간에 있어서도 그 마음의 수련정도에 따라 영혼의 지배능력이 높고 낮은 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로는 우리말로 신명 신령 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이나 영혼은 인간의 개인과 사회에 관계되는 것이지마는 신명이나 신령이나 신은 인간과 사회를 떠난 우주적 존재이고 천지신명(天地神明)이란 말과 같은 우주와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헤겔(F. Hegel, 1770-1831)의 이른바 절대적 정신(絶對的 精神)이 이것이다.

동양의 기(氣)사상에서는 만유의 근원은 기이며 그 기가 아래로 뭉치면

정(精)이 되고 그 기가 위로 승화되면 신(神)이 된다고 생각했다. 기 사상에서는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되고 물질과 생명과 마음과 영혼과 신도 하나가 된다. 기의 최하층은 물기(物氣)로 정(精)이다. 기의 제2단계는 생기(生氣)로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다. 기의 제3단계인 심기(心氣)도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다. 기의 제4단계인 영기(靈氣)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다. 기의 최고단계인 신기(神氣)는 우주의 핵심으로 도통한 사람에게만 감지할 수 있다.

정기신(精氣神)으로 이루어진 기 사상에서 원래 정이라 하는 것은 물질이란 의미요 물질은 정신을 의미하는 신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정신이란 말은 주로 마음, 영혼, 신명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물질을 의미하는 정(精)자를 붙인 것은 물질과 정신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 흥미롭다.

이 정기신(精氣神)사상은 동양의 도가사상에서 온 것인데 동양의학의 체계도 이 정기신 사상에 있고 세계적 명저인 허준(許俊)의 『동의보감(東醫寶鑑)』도 정기신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목적으로서의 정신개벽의 정신의 뜻은 물질에 대립하는 마음, 보통마음보다 한 단계 높은 영혼, 보통사람과는 다른 신명 등의 뜻으로 다의적으로 사용된 것 같다. 마음 또는 정신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心理學)인데 동물의 심리에서 인간의 심리 더 나아가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심층심리(深層心理)까지 연구가 되어 있다. 대개 심리현상으로서는 본능(本能) 지각(知覺) 감정(感情) 의지(意志) 의식(意識) 등이 연구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무의식(無意識) 잠재의식(潛在意識) 등의 정신 분석(精神分析)까지 연구되어 있다.

정신 즉 마음에 관해서는 전경에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많이 나온다. 영혼, 혼백(魂魄), 혼(魂), 신(神), 신명(神明), 신령(神靈), 귀신(鬼神)이란 자주 나온다. 마음과 영혼과 신명은 그 상태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 혼용되고 있고 또 전경에도 확실하게 구별하여 쓰지 않고 있어 정신개벽에 있어서의 정신도 마음과 영혼과 신명을 다같이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신이나 마음의 본체는 무엇인가? 전경 행록 3장 44절에는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의 추기요 문호요 도로다. 추기를 열고 닫고 문호를 출입하며 도로를 왕래하는 것이 신이다.(心也者 鬼神之 樞機也 門戶也 開閉樞機 出入門

戶 往來道路神)」라 하였고 또 전경 교운 1장 66절(현무경)에는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다. 고로 동서남북의 몸은 마음에 의존한다(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이라고 하였고 또 전경 교법 3장 2절에는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 하였다.

이는 마음이란 신의 통로요 또 신 자체이며 천지의 중앙이며 몸이 의존하는 바다. 이와 같이 정신개벽에 있어서의 정신은 마음과 영혼과 신명을 다 합쳐서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Ⅲ. 정신개벽이란 무엇인가.

개벽이란 천지가 처음 열린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천지가 처음 생기는 것이 개벽인데 그러므로 개벽이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말한다. 정치적으로 주권자나 제도가 크게 바뀌는 것을 혁명(革命)이라고 하고 근본은 바꾸지 않고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개조(改造) 개혁(改革) 개량(改良)이라고 하는데 개(改)라는 것은 원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다. 개조나 개혁이나 개량이나 그 어감에서 변화의 급진성 여부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뜻은 다 같다. 또 유신(維新)이란 말도 있는데 이것은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니 그 사명은 이제 새롭다.(周雖舊邦 其命維新)는 말과 같이 근본은 유지하며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는 뜻이므로 그것도 변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대순진리회 목적에서 정신과 세계는 개벽되어야 한다고 하고 인간은 개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감상으로는 개벽이란 말이 개조보다 훨씬 급진적이다. 개벽이란 말은 변화를 말하는 어휘 중에서 가장 급진적이다. 이 말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뜻으로 그 변화의 정도가 엄청나다. 정신과 세계는 새로 만들어낼 각오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인간은 이미 생겨져 있음으로 그 인간을 없애고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개벽이란 말 대신 개조라는 말을 쓴 것 같다. 그러므로 개벽이나 개조가 의미가 다르다기보다 다 같이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신을 개벽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무엇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느냐 하면 인간이 자기의 마음의 본체를 잃어버리고 그릇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본래의 마음으로 돌이킨다는 뜻이다.

인간은 본래 날 때부터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양심의 명령대로 살아왔다. 양심은 곧 천지신명의 마음이다. 중용(中庸)에 천명을 성이라 한다(天命之謂性)고 하였는데 성(性)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본성을 말하는 것인데 곧 양심이다. 그 양심은 하늘의 명령 즉 천지신명의 명령으로 사람이 타고 날 때에 천지신명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이다. 사람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천명에 순종하고 자기자신에게 충실한 것인데 사람이 그 양심을 버리고 욕심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곧 천명을 어기고 자기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양심을 배반하는 것은 곧 자기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정신개벽은 이 흐려진 양심을 근본적으로 되찾아 자기자신에게 충실하고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기자신을 되찾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커다란 변화이기 때문에 개벽이란 말을 썼다

Ⅳ. 자기란 무엇인가

지금 사람으로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자기(自己)라고도 하고 자아(自我)라고도 자신(自身)이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나(I, self, Ich, Ego)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경험적 자아(經驗的 自我)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각(感覺) 표상(表象) 감정(感情) 등의 경험의 신체적 심정(身體的 心情) 상태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에 내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감각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말이다.

이 경험은 신체나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나아가 처자나 조상이나 친구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따위의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의 총칭이다. 내가 아니고 남,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 즉 비아(非我)가 아닌 것이 자

아요 나다. 이러한 경험적인 자아는 늘 유동적이다. 이러한 늘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자아에 대해서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자아를 생각하는 것이 실체적 자아(實體的 自我)이다. 경험론이나 감각론에 따르면 경험적 자아 외에 따로 실체적 자아가 있을 수 없지만 경험적 자아를 철저하게 분석한 데카르트(R.Decarte, 1596-1650)는 여러 가지 작용의 유동성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는 것」(Res cogitation)으로서의 정신이 바로 자아의 실체라고 하였다. 칸트(I, Kant 1724-1804)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동하는 경험적 자아만으로는 '나'라는 의식에 통일성과 동일성이 생기지 않으므로 따라서 경험의 다양성을 통일하고 의식의 동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통각(先驗的 統覺, Transzendentale Apperzeption)으로서의 선험적 자아(先驗的 自我)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선험적 자아를 피히테(J. Fichte 1762-1814)는 절대적 자아(絶對的 自我, absolute Ich)라고 하였고 훗설(E. Husserl 1859-1938)은 이것을 순수아(純粹我 Reines Ich)라고 하였다.

경험적 자아는 모든 생물에 공통으로 존재하지만 실체적 자아라던지 선험적 자아는 고도의 정신현상인 자각(自覺)을 가진 인간에게만 존재한다. 특히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도 철학에서는 자아는 「아트만」(atman)이라고 하였다. 아트만은 원래는 호흡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신체, 자기의 뜻으로 쓰여지고 나아가서 주체로서의 자아의 의미를 갖게 되어 절대시되었다. 한편 자기가 아닌 타방(他方)세계의 근본원리 또는 절대자를 「브라만」(Brahman)이라고 하고 아트만과 브라만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고대철학서인 중용(中庸)에서는 하늘의 명령을 성질이라 한다(天命之謂性)이라고 하였는데 하늘은 인간밖에 있는 타자요 성질은 인간의 내면성을 말하므로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을 주장했는데 이는 천명과 인성을 동일시하여 인도의 범아일체설(梵我一體說)과 같다. 이러한 동양사상은 데카르트나 칸트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아설(自我說)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자아의 본질에 관해서는 성선설(性善說) 성악설(性惡說)의 대립이 있다. 동양에서는 유교나 불교가 성선설을 취한다. 천명을 성질이라고 본 유교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 하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니 인간자아는 본래 착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이 곧 부처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니 불교도

성선설을 취한다. 서양의 기독교에서는 인간 시조의 「아담」이 악마에게 유혹되어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니 언뜻 보면 성악설 같지만 인간이 창조될 당시는 하느님을 닮았다고 하니 그 근본은 성선설이다.

인간의 본질이 착하다는 것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은 인간의 의식의 원형이다. 양심은 인간의 속마음의 소리인데 그 소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 무언의 금지명령(禁止命令)이다.

양심은 착한 것을 명령하고 악한 것을 배척하는 통일적 의식으로 인간의 자기 본질이다. 동양에서는 맹자(孟子)가 양심이란 말을 썼고 왕양명(王陽明)은 양지(良知)라는 말을 썼다. 영어로는 Conscience라 하고 독일어로는 Gewissen이라고 하는데 Conscience는 con(같이)과 science(안다)의 합성어요 Gewissen은 Ge(같이)와 wissen(안다)의 합성어로 '같이 안다'는 뜻이다.

양심의 기원에 관해서는 선천설(先天說) 또는 천부설(天賦說) 후천설(後天說) 또는 경험설(經驗說) 비판설(批判說)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의 천부설은 양심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이한 능력으로 그 신에서 부여받은 것으로 그 타당성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요 둘째의 경험설은 양심이란 여러 가지 심적 요소의 복합체인데 그 기원은 개인적 내지 종족적 경험에서 오고 그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틀리는 일도 있으며 후천적으로 향상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요 셋째의 비판설은 경험적 개인의 현실적 양심은 유전, 교육, 환경의 소산으로 따라서 변전(變轉)한다. 그러나 모든 양심으로 하여금 양심으로서의 도덕적 권위 즉 초개인적 보편타당성을 갖게 하는 것은 이성(理性)의 자율(自律)로서의 선험적(先驗的) 도덕법(道德法)이다. 이를 선험적 양심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경험적 양심의 타당성의 근거로 절대적 권위와 존엄성을 가진다고 한다. 맹자의 四단설(四端說)이나 서양 중세의 스콜라철학은 천부설이라 할 수 있고 서양의 홉스(T. Hobbes 1588-1679) 로크(J. Locke 1632 - 1704) → 벤담(Bentham 1748-1832) 다윈(C. Darwin 1809-0882), 스펜서(H. Spencer 1820-1903)은 경험설이며 정언적 명령(定言的 命令), 절대의무(絶對義務) 등을 주장한 칸트는 비판설이다.

왕양명이 양심을 양지(良知)라고 하고 영어와 독일어에서의 양심을 같이 안다고 한 것은 양심이라는 것이 아는 것(意識)이 근본이라는 뜻이다.

양심은 잘 아는 것이요 같이 아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잘 알고 무엇과 같이 안다는 말인가?

양심은 첫째 있어야 할 자기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알고 자기와 사회의 관계 자기와 자연의 관계를 안다는 뜻이다. 인간은 있어야 할 자기의 본질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데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 타당성을 갖자면 상대방의 마음과 처지를 알고 그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이로운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와 상대방을 같이 아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양심인데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발로는 바로 사랑이 된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불교에서는 자비(慈悲)라고 하는데 이는 곧 동병의식(同病意識)에 기인한 고통 같이 나누기(分苦)이다. 불경 유마경(維摩經)에 유마거사가 병들었을 때 문수보살(文殊菩薩)이 문병하여 거사님의 병은 어떻게 하여 생겼으며 언제쯤 낫겠느냐고 물었더니 유마거사는 내 병은 중생(衆生)들이 앓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앓고 있는 것이요 중생들의 병이 나으면 내 병도 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불교적인 사랑인 자비이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간음을 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무리를 예수가 만류한 기록이 나온다. 그 자리에 있는 율법 존중자인 바리세이인들이 유대법에서는 간음을 한 여자는 돌로 치게 되어 있는데 선생께서는 유대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시겠습니까, 또는 법을 어기고 이 여자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는 당신들 가운데 죄없는 사람이 있거든 이 여자를 돌로 치시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동죄의식(同罪意識)에 기인한 용서라는 사랑의 형태다. 인간은 볼래 원죄를 가진 죄인이므로 죄인이 죄인을 칠 수 없으므로 서로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인간시조 아담이 저지른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의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곧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양심적 사랑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단군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의 우리 겨레의 사랑의 형태가 나와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둘째 아들(庶子)인 환웅(桓雄)이 천국에 있으면서도 지상을 그리워하고 지상에 내려가 인간들과 살고 싶어했다. 환웅의 이러한 생각은 하느님에 대한 반역행위로 보통 같으면 하느님이 크게 노하시고 그 아들은 벌주겠지마는 하느님은 그 아들이 딴 뜻이 있어서 천국을 버리고 지상으로 내려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되는 하느님인 자기의 천상천국과 같이 지상천국도 이룩하겠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알아차리고 그리한 것이라는 아들의 참뜻을 아버지 되는 하느님이 알아차리고 노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그 아들의 뜻을 이루어주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았다는 부지자의(父知子意)의 정신이다. 이것은 동심의식(同心意識)에 기인한 알아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곧 양심의 발로요 사랑의 형태인 것이다.

자기란 인간의 실체인데 그것은 자기 아닌 타아(他我)와 구별되는 자아(自我) 또는 소아(小我)가 아니라 자아(自我)와 타아(他我)를 합친 대아(大我)를 말한다. 소아에만 급급하면 이기적으로 되기 쉽지만 늘 타인을 의식하고 그 타인도 자기라고 생각하는 대아의 경지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곧 양심이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요 진정한 자기이다. 양심이 없는 자아란 거짓 자아요 거짓 인간인 것이다.

V. 欺(속임)란 무엇인가

속인다는 것은 진실을 감추고 허위를 조작하는 것이다. 또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자기의 본질인 양심을 배반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고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 훈회(1)에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하였고 (2)에 언덕을 잘 가지라 하였고 (3)에 척을 짓지 말라고 하였다.

또 대순진리회 수칙 (3)에는 자기를 속이는 일은 양심을 속이는 일이요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을 하는 것이요 비리괴려(非理乖戾)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4)에는 언동으로 남의 척을 짓지 말라고 하였고 (5)에는 일상 자신을 반성하라고 하였다.

대순진리회의 목적으로서의 무자기는 훈회와 수칙을 참고하여 보면 자기를 속이는 일은 양심을 속이는 일이요 양심을 지키면 언행이 이치에 맞게 되어 남의 척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양심을 지키고 언행을 삼가 척을 짓지 않는 일은 일상 자신을 반성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훈회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의 대순진리회 요람의 해설을 보면 마음은 일신의 주(主)이니 사람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마음에는 양심과 사심의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성이요 사심을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원래 인성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감행하게 되나니 사심을 버리고 양심의 천성을 되찾기에 전념하라.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인즉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하라고 되어있다. 또 수칙 (3)의 무자기는 도인의 옥조라고 하고 양심을 속임과 혹세무민하는 언행과 비리괴려를 엄금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본성은 양심이요 양심은 진실이요 도리(道理)인데 사람이 본성에 따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도리에 합하는 언행을 하는 것이 본래의 자태인데 인간의 본질인 그 양심을 잃으면 진실을 배반하고 허위에 흐르며 도리를 무시하고 비리(非理)로 떨어진다는 말이다.

자기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리하려면 일상자신을 반성하여 자기가 자기의 본질인 양심을 잘 지니고 있으나 또는 그 양심이 저버려졌거나 또는 흐려지지 않았나 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사람은 천성이 선하고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의 편안보다 육체의 편안함을 찾아 물욕에 빠지기 쉽다. 사람은 생명을 지니고 있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충족이 필요하다. 그 의식주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연히 물욕이 생겨 그 물욕이 생기면 양심이 마비되기 쉽다. 가령 나는 가난하여 작은 집에 살고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어 호화스러운 집에 사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 마음의 편안함을 구하여 나는 양심대로 사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양심을 지키는 일이지만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호화스러운 집에 살고 싶다는 욕심

이 생기면 첫째 자기 집이 작은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의 편안치 않아져서 위선 그것만으로도 불행하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의를 저지른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자기 자신 아닌 옳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어 욕심이 본심을 가리어 결국 진짜 자기를 속이게 되고 진짜 자기가 아니고 가짜 자기가 행세하는 것에 커다란 불행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진심대로 살자면 일생생활에서 무엇을 하던지 한번 반성하여 양심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양심에 맞아서 자기의 본심으로 하는 것인가 또는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의 본심을 속이고 허위로 하는 일인가를 살펴야 한다.

아무리 맑은 거울이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먼지가 앉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분명한 양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성하지 않으면 곧 욕심으로 더럽혀지기 쉽다. 대순진리회 수칙(5)에서 반성의 필요를 역설한 것은 반성은 마치 맑은 거울 위에 앉은 먼지를 털어 내는 것과 같아서 반성하지 않으면 양심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것은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유지를 위하여 물욕에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속인다운 것은 진실을 버리고 허위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자기를 속이는 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것을 알고 양심을 속이는 일이요 또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양심을 속이는 일이다. 돈을 탐내어 남의 재물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요 무심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별다른 양심의 가책없이 저지르는 일이지만 그것도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주는 일이므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다.

양심이란 자기 한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양심이 건재한가 하는 것을 반성하는 사람은 아무리 무의식적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짓은 아니한다. 훈회(5)에서는 남을 잘 되게 하라고 하였는데 훈회(1)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에서 말한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양심은 곧 남을 잘 되게 하는 이타심(利他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속인다고 하면 흔히 다른 사람에게 허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결국 속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 즉 자기 자신의 본체인 양심을 속이는 것이 된다.

남을 속이는 일은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죄(詐欺罪)가 성립한다. 그런데 자기를 속이는 일 즉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일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남이 비난하지 않더라도 양심은 자기를 속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가책은 세상사람으로부터 받는 비난보다 더욱 쓰라리다. 양심을 속이면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 된다. 아무리 세상사람이 좋게 보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욕하더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것은 행복된 일이다. 맹자(孟子)는 부모형제가 무고하고 좋은 제자를 가지는 것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인생의 3대 행복이라고 하였는데 양심을 지키면 우러러 하늘을 보아도 떳떳하고 굽어 땅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였다.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은 곧 허위를 물리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니 대순진리회 신조의 3요체인 성경신의 생활을 하면 자연히 양심이 굳어지고 양심을 속이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일은 곧 성경신을 실천하는데 있다.

Ⅵ. 무자기의 상태

정신개벽을 이루어 무자기의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의 정신상태는 과연 어떠할까? 그것은 대순진리회의종지를 달성하여 첫째 인간적으로 완성되어 음양합덕하는 생활로 인간적 행복을 맛볼 것이요 둘째는 사회관계에 있어 해원상생하여 사회생활에 정의가 실현되어 사회적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요 셋째로는 우주관계에서 신인조화하여 무한한 희열을 느껴 우주적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무자기의 상태는 인간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도통진경이다. 도를 통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양심과 같이 살고 양심대로 말하고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니 도통의 경지에 이르면 양심만 강해지고 욕심은 약해지거나 아주 없어져서 일언일구 일거일동이 모두 양심에 맞고 욕심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본래 인간은 동물의 일종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양심을 갖게 되고 그 양심의 비례에 따라 인간의 성숙도(成熟度)가 정해진다. 늘 반성하여 양심을 닦고 욕심을 버려서 마음이 온통 양심 뿐이요 욕심이라는 것이 없는 경지에 다다랐다고 하면 그것은 도통한 사람이요 성인(聖人)이다. 그 지경에 이르면 천명을 완전히 실행하는 도인이요 바로 자기의 마음이 천명이요 자기 자신이 하느님 그 자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은 마음 속에 계신데 그것이 양심이다. 동물은 욕심 밖에 없으니 하느님이 깃들일 곳이 없다. 인간은 양심과 욕심을 같이 가지고 있어 말하자면 신이 될 수도 있고 동물로 될 수도 있는 말하자면 신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요 신과 동물의 혼합적 존재다. 세속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도를 닦지 않으면 욕심만 늘어가고 양심은 줄어든다. 그러나 도를 닦아서 늘 자기반성으로 양심을 기르고 욕심을 버려 양심 쪽이 욕심 쪽보다 우위에 있게 되면 그것은 선인(善人)이나 현인(賢人)이 될 것이다. 욕심이 거의 없어지고 양심만 남으면 그것은 성인(聖人)이다. 성인은 곧 하느님이다. 양심은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강립한 것이기 때문에 양심만 있는 사람은 곧 하느님이다. 평생동안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찾으려 하는 사람이 고금동서에 많다. 우리는 그 분들을 성인이라 하고 하느님으로 대접한다. 우리나라의 단군이 그러하고 중국의 공자와 노자가 그러하고 인도의 석가가 그러하고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그러하고 유대의 예수가 그러하고 아랍의 마호멧이 그러하다. 근대에 와서는 한국의 최수운이 그러하고 강증산이 그러하다.

공자의 양심은 인(仁)이다. 인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공자는 열다섯살에 수도를 시작해서 30살에 인생관이 섰다. 그것은 국가는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즉 인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신념이다. 그러니 그러한 신념도 공자가 인간인 이상 늘 동요되었는데 40살에 가서야 그 신념이 확고부동하게 되었고 50살에 가서는 하늘의 명령 즉 천명 다시 말해

서 양심의 본체를 깨닫고 60살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늘 인자함을 베풀어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말도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70세에 가서는 행동마다 욕심이 거의 사라지고 양심에 맞게 되었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공자는 70에 도통하여 욕심이 없고 양심만 있는 성인이 되었다.(論語, 子曰吾十有五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 所欲不踰矩) 70세에서 말한 종심소욕은 그저 욕심대로 사는 보통인간의 생활인데 그것이 도덕 규범을 넘지 않고 모두 양심에 합당하다는 뜻이다.

공자와 같은 대성인도 70세에 가서야 비로소 양심만으로 사는 도통성인이 되었다고 하니 하물며 범인이야 참으로 도통하여 성인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공자가 양심만으로 사는 경지 즉 아무리 욕심대로 하여도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모두 도덕적 양심에 맞는 일이다 하는 경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쳤다. 공자는 먼저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것은 글자만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글자만을 배우는 것은 학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대여섯살때부터 유치원에 다녀서 글자를 익히게 되니 공자보다도 훨씬 나이 젊어서 학문을 뜻하게 된다. 그러니 공자가 15세때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평생을 양심대로만 살아가겠다는 것 즉 성인이 되겠다는 것 다시 말해서 도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의 학문에 뜻을 둔 것이 15세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학문의 뜻을 둔 사람이 요즘 과연 15세에 가능한지 의문이다. 평생을 살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15세는 커녕 30세 40세가 되어도 양심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마치도록 양심생활을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도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통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학문에 뜻을 두는 것이다.

공자는 30살에 인생관이 섰다고 하였다. 인생관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깊은 사색과 수양을 필요로 한다. 공자는 춘추시대에 태어나 나라마다 부국강병을 일삼고 권력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길로 알고 있었다. 공자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곧 인(仁)이다. 힘으로

는 사람을 심복시킬 수 없고 오직 인자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나라도 다스려야만 한다는 신념이 확립된 것이 30살 때이다. 공자가 30살에 인생관이 서고 신념이 굳어졌다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그 인생관과 신념이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고 늘 동요되었다가 40살에 가서야 그것이 확고부동하게 되어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당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것이 불혹(不惑)의 경지이다. 그리하여 계속 수양을 계속하여 50살에 가서야 천명 즉 양심의 본체를 깨달았다고 하였다. 천명을 알고 양심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만 아는 자아(自我)가 타아(他我)도 같이 알아주는 대아(大我)의 경지를 이해하게 되어 될 수 있으면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되고 보니 타인과 다툴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여도 그것을 선의로 이해하게 되어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는 일이 없고 귀가 늘·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귀가 거슬리게 되지만 자기가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설사 자기에게 불리한 말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초월한 대아(大我)의 견지에서 보면 귀에 거슬리지 않을 것이다. 공자는 이것을 이순(耳順)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70살에 가서야 자기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모두 양심에 합당하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성인의 경지로 도통한 경지이다. 이와 같이 공자 같은 성인도 도통까지 가는 데에는 참으로 여러 고비를 겪어야만 했다.

석가도 6년 또는 12년의 산중고행 끝에 성불하였는데 그 동안에 무수한 세속적 유혹을 견디어 내야만 했다. 석가는 헛것에 불과한 육체적 자아를 버리고 영구불변하는 정신적 자아 나아가서는 우주적 자아인 부처가 되기를 결심하고 왕자의 자리도 버려야 했고 험난한 구도생활도 겪어내야 했고 육체적 욕심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는 양심만 있고 욕심은 없는 부처가 되었다. 그가 도를 이루기 위하여는 인간으로서는 차마 견디기 어려운 출가를 하였는데 출가는 세속적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저 하는 결심이다. 그가 고행 끝에 29세 또는 35세에 견성(見性)하여 부처가 되었지만 80세에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는 수도 생활

을 계속했다. 그만큼 도통하고 성불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세속적인 것보다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예수는 양심의 원천으로서의 하느님을 믿고 그 하느님의 뜻인 양심을 실천하는 수도의 고행을 하였으며 많은 유혹을 받았으나 오직 하느님을 믿는 양심의 힘으로 그것들을 물리쳤다. 예수는 많은 유대인들이 형식적인 법률만 존중하고 양심과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는 목숨을 걸고 그들과 대결하였으나 결국 그들에 의하여 민족 반역자로 몰려 십자가를 졌으나 예수는 끝내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진정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양심의 존귀성을 예수는 죽음으로 보여주었다. 예수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죄 없이도 사형을 당해야 했고 최수운은 자기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죄 없이 참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무자기의 상태는 곧 양심 그대로의 형태요 곧 하느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경은 정신개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신개벽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험난함을 개벽이라고 표현했다.

무자기는 양심의 자태요 천지조화의 근원상태이다. 인간은 본래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세속적 욕심으로 더럽혀져서 그것을 개벽하지 않고는 그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개벽은 곧 원시반본(原始返本)이다. 태초에 천지가 개벽될 때에 인간은 착하고 양심은 굳었다. 사람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마음 즉 동심(童心)이 곧 양심이요 곧 하느님의 명령이었다. 그런데 인간이 세속화되어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 본심은 더럽혀졌다. 노자가 인위적 도덕의 허위성을 주장하고 무의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것은 물욕에 병든 인간의 사회제도를 비판한 것이다. 본래의 자연상태의 선량함을 말하고 인간의 사회제도의 부도덕함을 지적한 것은 루소(J.J.Rousseau 1712-1778)나 톨스토이(L.Tolstoi 1828-1910)도 같다. 본래 천지가 개벽되었을 때에 음양이 합덕되었고 신인이 조화되었다.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여 음과 양을 갈라놓고 신과 사람을 떼어놓았다. 원래 선량한 인간들은 결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타심이 깊었기 때문에 늘 남이 잘 되게 하고 남과 척짓는 일이 없었다. 인간에게 욕심이 강해지면서 이타심보다 이기

심이 더해서 자기만 살기 위해 남을 해지게 되고 남을 사랑하기보다 척이 생기게 되었다. 음양이 고르고 신인이 하나가 되면 음양도 상생하고 신인도 상생하여 원한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원한은 음양이 고르지 못하고 신인이 어긋나는 데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원시반본의 천지개벽시대는 무원(無怨)의 시대다. 원한이나 척은 자기의 이익을 위주로 하여 자기의 이익에 어긋나는 사태에 대한 분노심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원한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원시상태에서 원한이 가득 찬 선천시대로 들어서면서 인간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원한을 푸는 것이 후천개벽이다. 원한이 없던 선천개벽시대에 원한이 생겼다. 그 원한을 해소해야만 원시개벽시대의 무원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 무원시대는 모든 것이 조화되어 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타가 없었고 따라서 자타가 서로 같이 사는 상생도 필요없었다. 그러나 그 무원시대는 원한시대로 바꾸었고 원한시대가 계속되는 한 인간은 불행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여기에 해원하여 상생하는 후천개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해원하여 상생이 되면 자연이 음양도 합덕이 되고 신인도 조화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양이 합덕되고 신인이 조화되면 해원이 되어 상생될 것이다. 여기에 후천개벽의 필요성이 있고 그 후천개벽은 바로 정신개벽으로부터 시작된다. 선천개벽 다음에 후천개벽이 있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조리에 맞지 않는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천지와 우주는 한 번의 개벽으로 이루어졌을 뿐이요 다시 천지개벽이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천지가 다시 개벽되지 않으면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후천개벽의 당위성이 있다.

오늘날 발달된 천문학에 의하면 우주와 지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팽창을 계속하고 있으며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한다. 언젠가는 우주가 축소되어 원시의 태극상태 즉 대폭발(Big Bang)이전의 원시상태로 돌아가리라고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후천개벽설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다.

정신개벽을 하여 무자기의 상태에 이르면 그 정신은 성인(聖人)의 정신이요 신선(神仙)의 정신이요 하느님의 정신이다. 그러한 무자기의 상태에서는 자타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음양이 갈라지고 신인이 어긋나는 일이 없다. 음양은 본래가 하나로 음속에 양이 있고 양속에 음이 있다. 음양은 합쳐서

비로소 하나의 존재다. 양 따로 음 따로 논다면 음은 양을 해치고 양은 음을 해쳐서 원한이 생긴다. 신인관계도 같다. 신인은 본래가 하나다. 신명 가운데 인간이 있고 인간 가운데 신명이 있다. 신과 인이 따로 따로 노는 곳에서 신명이 인간을 해치고 인간이 신명을 해쳐서 원한이 생긴다. 이제 정신개벽이 되어 음양과 신인이 하나가 되면 원한이 없어지고 서로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서 상생하게 된다.

정신개벽으로 이루어진 무자기의 상태는 곧 도통한 상태요 진경의 상태다. 대순진리회의 4대 종지에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은 그 목적인 무자기 지상신선 지상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통한다.

Ⅶ. 무자기의 현대적 의의

1. 자기 반성의 필요성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첫째로 이상적인 마음을 갖도록 정신을 크게 변화시켜야 하고 둘째는 이상적인 인간이 되도록 인간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셋째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도록 세계를 크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마음을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즉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상적인 인간은 신선이 되는 것이요 이상적인 사회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정신개벽을 이루어 무자기의 상태 즉 양심의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그 철저한 자기반성이 정신개벽이다.

현대인은 이기주의에 젖어 모든 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면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감각적 자기 즉 동물적인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일시적으로는 만족할지 모르나 실체적 자기 즉 진짜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복이 진짜라고 할 수 없다. 진짜 자기는 다만 동물들과 같이 본능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본질적인 자기인 양심을 지킨다. 이 양심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행복은 결코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인간은 너무 오래 동물적 본능에만 치중하여 생활하여 왔음

으로 인간의 존엄성의 상징인 양심을 속이고도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반성하여 그 양심을 되찾을 때가 왔다.

그 양심을 되찾는 일은 보통의 반성이 아니라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아주 커다란 대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저 잠시 자기가 한 일을 뉘우치는 정도의 반성으로는 좀처럼 양심으로 복귀할 수는 없고 더럽혀진 마음을 확 뒤집어서 마음을 아주 바꾸어 놓아야만 한다. 그것이 정신개벽이다.

현대인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불행을 모두 타인의 탓으로 돌린다. 가령 자기가 가난하여 못산다고 하면 먼저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야만 한다. 첫째로 자기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였는가? 자기가 성실하게 생활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용을 얻었는가 경제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경기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가 기타 자기가 깊이 반성하여 보면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가난하게 사는 원인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고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첫째로 지금까지 게을렀던 것을 부지런하게 일에 열중하여 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은 틀림없다. 또 지금까지 성실하지 못하여 신용이 없어진 것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서 타인의 신용을 얻으면 그만큼 살림이 낳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좀더 경제를 공부하여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면 경제적 활동에 크게 유익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반성을 하면 어느 정도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은 안하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산다고 생각하면 자기 노력을 할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길이 없다. 또 사회제도가 그릇되어서 자기가 못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회제도가 개혁될 때까지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자기가 가난한 것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제도의 잘못으로 되는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만으로는 살아나기가 힘들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던지 사회제도가 어떠하던지 간에 먼저 자기자신의 할 일부터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도 먼저 자기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회복하는 것도 먼저 철저한 자기반성을 필

요로 하는 정신개벽은 바로 현대인의 병폐인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만 돌리는 폐습을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인간 존엄성의 제고

무자기의 경지는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양심은 바로 인간존엄성의 상징이다. 인간은 양심이 있으므로 다른 동물과 구별되고 양심이 있으므로 인간이 만물가운데 가장 존엄한 존재가 된다. 인간은 그 체구가 사자나 호랑이만큼 강하지 못하다. 신체가 강한 것으로 존엄성을 따진다면 인간이 결코 존엄할 수가 없다.

인간은 그 수명이 거북이만 못하다. 수명이 긴 것으로 존엄성을 따지자면 인간이 결코 존엄할 수가 없다. 개는 인간보다 후각이 더 발달했고 독수리는 인간보다 시각이 더 발달했다. 감각이 발달한 것으로 존엄성을 따지자면 인간이 결코 존엄할 수가 없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이성이 발달하여 다른 동물로서는 불가능한 과학 문명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문명이 인류를 이롭게 한 점도 많지만 그 과학문명으로 전쟁 등을 일으켜 인류를 살상한 일도 적지 않다. 과학문명이 인류의 행복에 기여했다면 그 과학문명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과학문명이 인류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였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이 양심을 회복하고 모든 생활을 양심에 따라 하여서 인류는 물론 다른 생물에게까지도 혜택을 주는 것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고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존엄성의 근거는 바로 양심이다. 양심은 곧 하느님의 명령이므로 인간은 양심을 가질 때만 하느님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지능이 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심이 없는 인간은 하느님을 모르는 것이요 하느님이 될 수 없다.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되어도 양심이 상실되면 그 과학문명은 죄악에 불과하다. 요즘 인간의 양심이 상실되어 그 행동이 동물보다도 더 비양심적인 경우가 많은데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는 것은 양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만 한다.